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찾으시는 일에 자원하는 심 영으로 이 한목숨 바칠 뿐이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중에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과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18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갈대 같아서 쭈대가 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면서 창조 이후 수천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빛을 밝혀주어서 만물을 소생하고 생육하게 하는 햇빛과도 같이 변함없이 그 생명의 뜻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문서로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연필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정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약 3년 정도 저는 사단과 그 사자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매 순간 매일 매 일이 숨통을 조여 오는 살인적 몸과 마음에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지옥과 천국으로 수 없는 나날들을 왔다 갔다를 반복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이나 가려져 있었던 성경 속의 진주와 보화와 같은 말씀을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아닌데 왜 저에게 성 영님께서 제 입술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단속하시면서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제 믿음을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의문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묻곤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단은 세차게, 거세게 세찬 바람이 나무와 가지를 흔들듯 제 믿음을 흔들면서 방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기준이 되는 신구약 66권 성경 걸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께 생명의 뜻이요, 곧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죄요, 죄의 원흉이요, 사단의 모

든 저주요. 질병이요. 사단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성 영님
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물과 피.
♥!=요한1서 5장 7절+8절 말씀! 증거하는 이는 성영이시니 성영은 진
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
여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적인 생
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여서 풍성한 생
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이미 인터넷에 있었는데 나 같
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소자에게 친구약 66권 성경 겐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에 생명의
뜻이요. 곧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죄요. 죄의 원흉이요. 사
단의 모든 저주요. 질병이요. 사단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
로 임하여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
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여 풍성
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새김
질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가르쳐 알게 하시면서 문서로 기
록하게 하실까. 하는 의문으로 제 마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르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살인적 고통 속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일은 아닌가 해서 중간에 중단했었으나 결국에는 제가
밤새도록 꿈속에서 눈물짓고 우는 꿈과 낮에는 몸이 춥고 속이 뒤집히
는 것같이 아파서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는 죽으나 사나 기도하고 주신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일을 시작한 일이 영으로 기도 하고 영으로 찬송
가를 부르면서. ♥!=고린도 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레 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온몸
은 살인적 고통 속이었지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가를 한 곡.
한 곡씩 외워서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지
금은 하루 153곡을 영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왼
쪽 무릎과 왼쪽 고 관절의 육신거림과 물만 먹어도 속이 뒤집혔던 위

통과 여기저기 온몸이 살인적 통증으로 종합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제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영과 혼과 육체와 범사에 유익으로 이루어졌기에 사람은 역시 영이 성 영님으로 유익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고린도 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 영님께 가르침과 연단을 받아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고 내 영혼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하게 되는 일이 영적인 원리요. 그리고 또 살아 있는 성경 말씀의 원리인 일을 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부터 성 영님께서 저에게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면서 말씀이 물밀듯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1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런데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영으로 기도 하고 영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에는 역시 온몸이 살인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저녁을 먹고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그 고통 들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괜찮아 평안해지면서 잠을 자는 데는 지장이 없다가 새벽 시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그 고통 들도 시작되면서 저는 그 공통들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감당하고.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레 마의 말씀을 정리를 지금까지 정리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헤매면서 왔다 갔다를 반복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

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
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성 영님께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런 저이었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관리 감독하시면서
붙들어 주셨고. 세워주셨고. 위로 하시면서 (새벽 약 03시_03시 30분
정도 시간에 제 꿈속에 핸드폰 울림소리나. 생수를 폭포수처럼 쏟아부
어 주신다거나. 초인종 소리나. 종소리나. 노크 소리나. 찬송가 소리
등으로 약 5년_6년 정도 제 새벽 잠을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
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02시_03시 사이에는 잠자리
에서 스스로 일어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동안 기록한 문서에 주제별로 제목을 선
정해 제 카페에 올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영이 영
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제 영혼에 생명의 생수로 부어주셨고.
신구약 66권 성경 걸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에 생명의 뜻이요. 곧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
이요. 죄요. 죄의 원흉이요. 사단의 모든 저주요. 질병이요. 사단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
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
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
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오셨고 연단하면서 저를
이끌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제
가 세상 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런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했던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하나
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는 믿
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 영의 가난.
곧 세상에 대하여 품은 마음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제 것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세상을 품은
마음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여함을 예수님의 생명으
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과. ♥!=야
고보서 2장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찌어다 하나님이 세
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

멘!!! 그리고 심 영이 가난한 자는(그 속에 세상이 없는)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영혼에 생명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를 붙드셨으며.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셨으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글을 받을 수는 있을까. 그리고 또 스마트 시대인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글을 읽기나 할까.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의 글이니 땅에 묻히지 않을까. 하는 저에게 성 영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의 글이 땅에 묻히지 않았고 오늘날 성경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하늘과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여 하늘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만 그 들이 기록한 글들은 이 하늘과 땅에 묻히지 않아서 오늘날 성경 말씀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밧모섬에 유배되어 기록한 요한 사도의 글도 땅에 묻히지 않고 오늘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단과 사단의 일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죄인인 것과 하늘가는 의와 생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서 그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고서 이 하늘과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의 생명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상기시켜 주시는 일은 한두 번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글의 시작과 끝은 성 영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무리도 성 영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것을 알았기에 저는 기쁘고도 행복하여 믿음에 담력을 얻었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글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는 일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 영님께서 저를 단속하시면서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제 믿음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면서 연단하셨듯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성 영님께서 다른 영혼도 제게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제 영혼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신랑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게 하듯 그렇게 하실 일이기에 그 소망 중에 즐겁게 살인적인 사단과 그 사자들의 공격을 이겨 내면서 그 누가 받되 풍족하게 받아 누리도록 제 카페에 글을 올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듯 제가 저를 보아도 성 영님의 간섭과 감동과 인도와 가르침과 위로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들은 쫓대가 없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서 성 영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 주지 않으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성 영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하늘과 땅에서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단도 성 영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쓰임 받는 피조물이기에 성 영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단이 공중에 강력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성 영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성 영님께서는 온 우주와 이 하늘과 땅에 총만하게 계시는 분이셨으며, 그리고 창조의 영이셨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기에 피조물인 사단이 어떻게 견줄 수가 있었겠는지요? 그래서 사단도 피조물이고 창조의 영이신 성 영님께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 도구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단 자신이 자기의 지혜로 사람들을 통해서 성 영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 역할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 영님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성 영님을 의지하고 쫓아 살면서 말씀으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길인 신앙의 길과 영적인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성 영님께서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생명의 생수로 제 영혼에 공급하시고 친구약 66권 성경 곁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에 생명의 뜻이요. 곧 레 마요. 곧 영이요. 생명이요. 죄요. 죄의 원흉이요. 사단의 모든 저주요. 질병이요. 사단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내 영혼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여 제 영혼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제 영혼에 생명으로 새기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글을 제 카페에 올려놓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이런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면서 자신에 능력으로 세찬 바람이 나무와 가지들을 흔들듯 제 믿음을 세차게 흔들면서 멍공한 것이지만 (제 꿈속에서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어대는지 나무가 90도로 꺾일 정도의 회리 바람이 부는데 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비웃는 모습. 그리고 어떤 때는 조롱하는 모습.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제게 엄포를 주어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습들과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제가 길을 걸어갈 때 저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들이 제게 달려들어 폭행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키가 무려 우리나라 아파트 1층_2층 정도에 크기의 거대한 사람이 그 육중한 팔과 손으로 제 목살을 잡고서 이글을 누가 기록하라고 했느냐고 엄포 주기를 제 꿈속에 두 번이나 나타나 말했는데 그런 악몽도 약 1년 이상을 꾸면서 시달리기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한 번씩 3일 동안 내가 졌다. 나간다. 그리고 굿 바이를 선언하고 내게서 떠나가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굵고. 묵직하고. 허스키한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이었으나 그 순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곧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 들이 생각나면서 나는 자유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곧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그리고 나는 해방 되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밀려오는 자유와 무엇인가에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해방감과 아!~나는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감에 그 기쁨과 행복함에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감내하고. 감당하고.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들에 대해 확실하게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 영혼에 생명으로 이루어진 말씀 들이 되었다는 일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사단과 그 사자들의 방해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이글이 어떻게 사용 되는 일은 성 영님께서 아시는 일이니 저는 다만 기록하는 그 일에만 충실할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원하는 심 영이 참 으로 아름다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 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야고보서 1장 17절+18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식언치 않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참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저를 단속하시 면서 가르치시고 연단하여 제 믿음을 세우시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 이유와 영문도 모르면서 사망의 고통 속 에 시작한 이일이 어느덧 약 3년의 세월로 문서로 정리해 제 카페에 올려놓게 하시고 성 영님께서 관리 감독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 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미 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로마서 8장 29절 말 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맏아들로 세우시고 그다음 아들이 요. 예수님의 형제로 세우시기 위해 그를 단속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연 단하여 그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요. 공중 강림 예수님의 신부요. 성 영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구별하 여 세우시는 일을 그 누군가에게 하실 일을 제가 알았기에 그 누가 되 었든 그 가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혼돈에 빠지고 그중에는 많은 사 람이 저는 대적하면서 공격하겠지만 그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찾는 일이기에 이 한목숨 바쳐 성 영님께 온유 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원하여 순종할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